

대한민국 살리는 지역 균형발전의 길을 모색하다

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

박진우 | 모아박스 | 2만3000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품다’ 행사를 열었다. 이는 지역 간 “균형발전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숙고하되 국가 단위 책임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 제시 없이 요구 민원만 쏟아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준비 안 된 회의’라고 비판했고 정부에게 명확한 지원을 요구할 정책 설계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간된 박진우 작가의 신간 ‘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 지역행정이 만들어낸 변화와 그 가능성에 주목한다.

박 작가는 광역의회 4곳과 기초자치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 19곳의 현장 중심 정책을 집중 분석했다. 나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23개의 사례를 선별해 소개한다. 특히 이들 사례는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국정과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성과들이다. 저자는 이 정책들이 지역 주민의 일상

어떻게 바꿨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며,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되며, 부문별로 실제 현장에서 추진된 정책 사례들이 소개된다.

1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부안군의 국산 밀 살리기’, ‘정양군의 먹거리 계획’, ‘고성군의 주민 참여형 산불방지 대책’, ‘부여군의 염류집

적 하우스 지원 조례안’ 등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다룬다.

이어 2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체계에 주목한다. ‘광주 남구의 복지상담소 운영’, ‘노원구의 온종일 돌봄 조례’,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 ‘제주도의 4.3특별위원회 활동’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례들이 담겼다.

3부에서는 ‘보성군의 공동체 복원’, ‘옥

천군의 생활인구 유입정책’, ‘신안군의 에너지 이익공유제’, ‘태안군의 해양치유산업’ 등을 분석하며 4부에서는 안전과 청년, 노동 등 도시 생활 속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 성동구의 첨단 횡단보도, 울산 동구의 노동기금, 인천 부평구의 창업지원, 경기도의 치과 주치의 제도, 밀양시의 의열기념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지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정책들이 다뤄진다. ‘정선군의 아리랑 세계화’, ‘충주시의 택전 진흥 조례’ 등이다.

박 작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정치인을 움직이는 건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각 정책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론적 배경부터 실천 과정, 정책의 결과까지 연결해 지방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침서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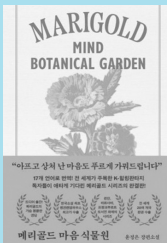
새 정부의 요구대로 지금은 지방자치의 성숙을 넘어 ‘지방정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전환기다. 이번 신간이 단순한 사례집을 넘어서 각 지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가 참고해야 할 로드맵인 셈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꽃과 나무로 가꾸는 회복의 서사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

윤정은 | 북로망스 | 1만8000원



전 세계가 주목한 K-힐링판타지 메리골드 시리즈의 완결판이 출간됐다.

이번 신간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은 출간 1년 7개월 만에 100쇄를 돌파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와 후속작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의 감동을 완성할 완결판이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속 ‘올해의 책’에 선정됐으며 해외 20여개국에서 17개 언어로 번역된 ‘메리골드 시리즈’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깊은 울림을 전해왔다. 이제 그 여정을 완성할 아름다운 엔딩이 펼쳐진다.

이야기는 어느 날 메리골드의 한적한 해변가에 ‘마음 식물원’이 새롭게 문을 열며 시작된다. 마을에 갑자기 등장한 검은 쇼트커트의 여자 사장은 지치고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꽃과 나무로 달랜다. 담담하면서도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의 위로에 식물원은 어느새 손님들로 북적인다. 식물 하나하나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돌보고 살뜰히 어루만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과거 ‘마음 세탁소’에서 만났던 지인을 다시 마주하는 듯한 기분을 안겨준다.

식물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와 조금씩 겹쳐 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후회하며 자신을 믿지 못한다. 주인공 지은은 이런 이들의 마음을 꽃과 나무, 때로는 씨앗으로 피워내 따스하게 어루만지고 돌봐준다.

이렇게 작품은 전작들의 마법처럼 신비로운 서사와 따뜻한 정서를 잇는 동시에 ‘식물’이라는 새로운 은유로 치유와 성장의 의미를 한층 깊이 있게 풀어낸다. ‘마음 세탁소’에서 상처의 얼룩을 깨끗이 지우고, ‘마음 사진관’에서 놓치고 있던 행복을 사진에 담아 보여줬다면, ‘마음 식물원’에서는 지우지 못한 깊은 아픔과 슬픔을 꽃과 나무로 피워내는 과정을 통해 돌봄과 회복, 성장의 감동을 그려낸다.

“당신이 돌보지 못한 마음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이 소설은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운 모두의 인생을 조망하는 것만 같다.

시리즈의 완결을 기념해 제작된 사랑스러운 세트 표지 디자인도 소장 가치를 높인다. 이번 표지는 시리즈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동시에, ‘마음 치유’라는 메리골드 시리즈의 따뜻한 세계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오랜 시간 곁에 두고 싶은 ‘기억의 책’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박찬 기자

“로봇은 도구일 뿐… 규제와 윤리 기준이 더 중요하다”

천재 로봇공학자 다니엘라 루스의 MIT 로봇 수업

그레고리 몬 | 김영사 | 2만3000원



“로봇은 망치처럼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다니엘라 루스 미국 MIT 인공지능연구소(CSAIL) 소장이 최근 출간한 ‘MIT 로봇 수업’을 통해 로봇에 대한 철학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로봇은 인간을 유능하고 생산적인 존재로 이끄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MIT CSAIL을 이끄는 저자는 책에서 로봇을 ‘지능형 기계’라고 정의한다.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한 뒤 물리적 행동으로 반응하는 장치를 로봇으로 본다. 그는 “일반 자명종은 로봇이 아니지만, 시간을 감지해 스스로 알람을 울리는 장치로 개조하면 로봇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 정립은 로봇을 단순히 인간을 돕는 기계적 보조물로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연결된다.

루스 소장은 로봇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물리적 힘과 지능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목적에 따라 작동하는 ‘종속된 기계’라고 강조한다. 로봇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인간과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루스 소장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손끝 움직임을

정교하게 구현하는 로봇 손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두뇌 시스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 유연하면서도 강한 인공 근육 개발도 로봇 공학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저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윤리와 규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처럼 로봇의 공익성과 위험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로봇이 상업적 용도로 출시되기 전, 용도별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기관의 설립도 강조한다.

“로봇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루스 소장의 말이다.

박찬 기자 연합뉴스

세계사를 바꾼 와인 이야기

나이토 히로후미 | 사람과나무사이 | 1만8500원

‘신의 음료’라는 별명에 걸맞게 와인은 수천 년에 걸쳐 세계사에 영향을 끼쳐왔다. 와인을 통해 인류 문명의 결정적 장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간이 출간돼 화제다. 고대 그리스 민주정 탄생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중세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이는 시대가 흘러 1976년 벌어진 일명 ‘파리 심판’ 사건으로 이어진다. 부르고뉴 절대 신화를 무너뜨린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의 등장이었다. 이처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주류로 꼽히는 와인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욕망과 정치, 경제, 종교, 전쟁, 문화 등과 맞물려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왔다. 와인으로 얼룩진 매혹적인 이야기가 독자들을 시음한다.



폴리티컬 디톡스

이재호 | 리북 | 1만8000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지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이러한 양상은 심화된 진영논리와 한쪽 이념을 신봉하는 집단 선동으로 더욱 격화됐다. 이 신간은 정치에 지친 이들에게 “정치는 구원의 서사가 아닌, 공존의 기술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치우친 감정과 절대적 믿음으로 형성된 정체성에 갇힌 정치를 해독해야 한다는 일침이다. 정치인들은 프레임, 선동 등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믿음체계를 이용해 양극화를 심화한다.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쉽게 믿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이런 왜곡된 믿음체계가 퍼져나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 퍼진 정치과잉을 극복하기 위해 진보·보수 양 진영이 협치해 건전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소설 보드:여름 2025

김지연 외 2인 | 문학과지성사 | 5500원

새로운 세대가 그려낸 여름의 소설적 풍경이 담긴 특별 기획 ‘소설 보드: 여름 2025’가 출간됐다. ‘소설 보드’는 지난 2018년 시작돼 분기마다 출판사의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된 작품을 엮어 소개하는 시리즈다. 젊은 작가와 독자를 가장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여름 신간에는 김지연의 ‘무덤을 보살피다’, 이서아의 ‘방랑, 파도’, 함윤이의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 등 작품 세 편과 작가의 인터뷰가 실렸다. 각각의 작품은 억압된 진실과 선택의 무게를 짊어 죽음의 경험을 화자의 삶을 다루며 신비한 종교 집단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하는 순간 등을 포착한다.

